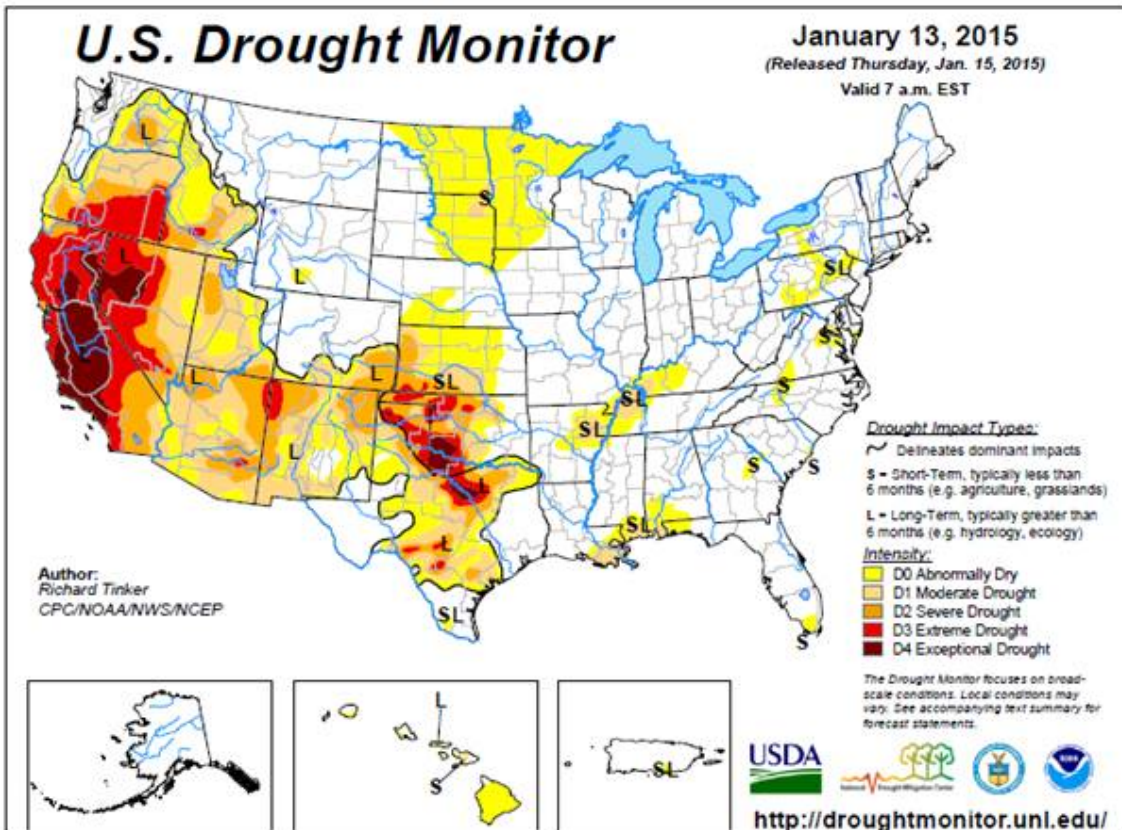


1월 2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3)

□ 미국 기후 현황(1/11~1/17)



강수량은 대체로 캘리포니아 지역을 우회하였으며, 건조한 날씨의 확산은 4주째 이어졌다. 높은 고도에 위치한 시에라네바다의 스노우 팩 평균 수분함량은 5인치를 넘었으며, 1월 중순 평균의 1/3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부지역 코너에 위치한 4개 주와 태평양 북서부에서 북부 록키산맥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 곳에서는 비와 눈이 광범위하게 내렸다. 주 초반 남서부 지역에서 강수량이 기록되었으며, 주 후반 북서부 지역으로 폭풍우가 이동하였다. 소량의 비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트 베이신 지역과 서부 중산간 모든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10°F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평원과 중서부 상단지역에서는 온화한 날씨를 동반하였다.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는 북부 대평원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가을밀을 보호하던 스노우 커버를 침식시키거나 제거하였고, 남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밀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대체로 소량의 강수량이 동부 텍사스에서 대호지역의 하류지점을 따라 기록되었다. 남중부 대서양 연안 대평원에서는 주 초반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2인치 이상), 오하이오 계곡에서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겨울 날씨(눈, 진눈깨비, 어는 비)가 발생하였다. 사실상, 북동부 지역에서는 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적어도 평균 10°F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난한 날씨로 변화하기 전, 북부 대평원에서 북동부지역에서는 혹독하게 추운 날씨가 잔존하였다. 1월 13-14일경, 북부 미주리와 중부 지역인 일리노이 및 인디애나 지역의 기온은 영하 0°F 아래로 떨어졌다. 중서부 지역에서는 1월 13-14일 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가을밀의 절연상태를 제공하였다.

□ 농업 현황 요약(1/12~1/18)

콘벨트와 대평원 지역은 한 주간 강수량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롤라이나 연안과 플로리다 일부 지역, 루이지애나, 오레곤, 워싱턴 주에서는 강수량이 2.5인치 이상을 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서부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주간 기온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동부지역에서는 기온이 대체로 평균보다 낮았다. 뉴욕 일부 지역 및 텍사스의 걸프 연안지역의 경우에도 기온이 평균 6°F 정도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1/11~1/17)

■ 유럽: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중부와 북부 유럽지역에 지속되었으며, 남부 유럽에서는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지난 주 내린 효과적인 비를 대신하였다. 강력한 폭풍이 북부 유럽지역을 휩쓸고 지나가 강한 바람과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강수량(10-50mm, 국지적으로 그 이상)이 영국에서 중부와 북부 프랑스 및 독일 지역에 내렸다. 그러나 기온이 평년대비 6°C 이상 높아져 겨울 작물의 건조함을 감소시켰으며, 더욱 따뜻해진 프랑스와 독일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밀의 성장이 촉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영하에 따른 작물 피해와 화상의 위험은 없었을지라도, 따뜻하고 습한 날씨는 주요 북부 밀과 유채 재배지역에서 보호적 스노우 커버의 결핍을 지속되게 하였다. 한편, 한 주 동안 지속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야외 농작업과 겨울 곡물의 생육에 용이하였으며, 주말에는 소량의 비(1-15mm)가 내려 이베리아 반도에 토양 수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발칸반도의 경우 계절적으로 따뜻한 날씨(15-22°C)는 남아있던 스노우 커버를 녹였고 겨울 작물의 건조함을 감소시켰다.

■ 구소련(서부): 비를 동반한 따뜻한 날씨는 서부와 남부 지역에 보호적 스노우 커버를 녹였고, 새롭게 내린 눈은 중부 러시아 지역에서 동면중인 가을밀을 뒤덮었다. 중부 우크라이나와 남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평년대비 4-10°C가 높음)이 주 초반 형성되었으며, 밤 최저기온은 가을밀이 노출될 위험에 처할 만큼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보호적 스노우 커버가 많이 녹았다. 한편, 주 초반 내린 눈(눈의 깊이는 평균 15-30cm)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북부와 남부 지역뿐 아니라 중부와 불가강 유역에 이르기까지 동면중인 겨울 작물의 절연을 증가시켰다. 역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였으며, 겨울철 작물의 동사의 위험도 없었다. 강수량(10-35 mm)은 건조한 가을 날씨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 호주: 지난 주 기상이 소강상태에 이름에 따라, 북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과 남부 퀸즐랜드에서는 5-25 mm의 비가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역에 내렸다. 비는 면화, 수수, 기타 여름작물에 필요한 적당한 양의 수분을 유지해 주었다. 주 후반까지 맑고, 매우 따뜻한

날씨는 여름작물들이 재생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롭게 하였다. 한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과 거의 비슷하였으며, 최고 기온은 30°C대를 기록하였다.

■ 아르헨티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던 서부 생산지역에서 비가 확산되어 내렸으며, 옥수수과 대두와 같이 다양한 생육 단계에 진입한 작물들의 생육조건을 향상시켜주었다. 아르헨티나 최대 옥수수과 대두 생산지역인 Cordoba의 총 강수량은 50mm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북서부 생산지역과 Salta 인근지역에서도 비슷한 강수량을 나타냈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총 강수량은 50-100mm를 나타내, 여름 곡물과 유채, 면화의 수분 함유량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었다. 한편, La Pampa와 남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더욱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최근 건조한 날씨는 옥수수과 대두의 수분을 감소시켜 겨울 곡물의 수확단계의 진입에 도움을 주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비슷하거나 높았다.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의 경우 낮 최고기온은 30°C 초·중반이었으며, La Pampa 지역에서는 40°C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운 날씨는 북부 지역(주로 Santiago del Estero, Chaco, Formosa)에 역시나 영향을 끼쳤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1월 15일 기준 옥수수 파종률은 88%p로 전년과 동등한 수준이었으며, 대두 파종률은 95%p로 전년대비 3%p 앞선 수준이었다. 밀의 수확은 100%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건조한 날씨가 브라질 북동부지역을 지배하였고, 대두 벨트 지역이 서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동부 연안에서부터 Goias까지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중서부 농업지역의 주요 대두 재배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건조한 날씨는 최근 재배시기에 내린 산발적인 강수량을 경험한 상파울루의 북부 사탕수수 재배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평년대비 더욱 건조한 날씨(총 강수량이 10mm 미만)는 서부 Bahia와 Tocantins와 Piaui 지역에 3주 연속 지속되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2-5°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수일 동안 30°C 중반을 기록하는 등 대두, 커피,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타 여름작물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계절적으로 내린 비(25-75mm)는 브라질의 주요 대두 재배지역인 Mato Grosso와 남부 Rio Grande do Sul 지역에 계속되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평균 몇 °C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Mato Grosso의 경우 30°C 중반, 더욱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30°C 초반으로 기록되었다. 브라질의 서부와 남부 농업지역에서는 대체로 작물 생육에 좋은 기상 조건이 유지되었다.